

행복한 책 읽기

‘무지개 꽃의 찻집’(샘터 펴)

이 책은 제목만 봐도 단순한 어느 찻집의 이름이다. 표지는 제목에 걸맞게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예쁜 파스텔 톤이며 크기는 작다.

무대는 일본 치바 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해안 절벽 끝에 있는 무지개가 걸린 작은 찻집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이 카페는 ‘맛있는 커피와 음악’이 있다고 좌회전 방향을 제시해준다. 카페로 가는 길은 풀이 무성하여 바퀴자국 밖에 없고 도무지 찻집이라곤 있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그 길을 따라 가보면 정말 작은 찻집이 나온다.

찻집 주인은 피아노를 전공한 에스코라는 초로의 여인이다. 지난날 화가였던 남편을 잃고 홀로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찻집은 테이블이 두 개밖에 없을 정도로 아담하지만 멀리 후지산이 보이고 가까이는 멋진 한 폭의 풍경화가 일색이다.



사회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독서 힐링이다. 단 한 권의 책인데 등장인물을 통해서 작은 위안을 얻고 자신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유니크하게 부제 또한 솔깃하다. 제1장 봄 ‘어메이징 그레이스’, 제2장 여름 ‘걸즈 온 더 비치’, 제3장 가을 ‘더 프레이어’, 제4장 겨울 ‘라브 미 텐더’ 등 음악적인 배경이 또 한몫을 한다. 비단 음악 만이아들이 아니라라도 익숙한 제목

삶이 치유되는 컴퓨터

그녀는 그날 찾아오는 손님에 따라 꼭 맞는 커피와 음악을 선사한다. 특히 하계 그녀는 차를 준비할 때마다 주문을 외운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하고 외우면 신비할 정도로 맛있어진 다. 따뜻한 찻집 주인이 커피향에 전하여 손님들은 금세 얼었던 마음을 녹인다.

아내를 잃고 어린 딸과 살고 있는 젊은 남자, 이른바 직장고시에 시달려 고민하는 청년,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침입한 전직 칼잡이 도둑, 밴드로 젊은 시절을 활동했던 에스코의 조카, 에스코에게 오래 기간 연정을 품었던 단골손님 등이 찻집에 와서 머물다 간다. 이 손님들이 찻집에 와서 얻어가는 것은 감동과 평안함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생존경쟁에 시달려 고단하고 외로운 때 누군가 옆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 위로가 된다. 이 책은 바로 우리가 현대

이다. 계절에 맞게 곡을 선택해서 들려줄 때면 그녀의 눈빛도 이내 애잔해진다. 남편을 그리워하는 감성적인 측면이 소설의 소재와 적당히 얼버무려져 있다. 에스코는 ‘과거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건 현재의 자기 자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라고 어필했다.

인생이 망설여질 때 로큰롤처럼 살기로 하면 재밌어진다는 참신함, 열원하고 있는 일에 주문을 외우는 소박한 순수함, 꿈과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고요히 기다리는 담담함, 자신에게 닥친 어떤 운명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강인한 인내력 등 넉넉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끝으로 이 책에는 ‘은화’라는 낱말이 자주 나온다. 작가 모리사와의 파스한 상상력과 서정적인 문체가 아름답고 순박하게 그려져 있다.

봄빛 찬란한 날, 꽃잎에 꿀 같은 책을 펴면 단연코 이 책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에스코처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하고 주문을 외우면 분명 행복해질 것이다.

안영옥 /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

광주문화재단, 창의예술학교 참가자 모집

11일까지, ‘청춘자서전 학교’ ‘보헤미안 여행 학교’ 등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학교 밖 삶의 현장에서 체험과 예술을 배우는 ‘창의예술학교’가 문을 연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광주창의예술학교’ : 삶과예술배움창 4개 과정 참가자 130명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바퀴달린 학교’(북구문화의집·40명)는 산과 들, 논두렁을 다니며 자연을 배우는 땅과 예술만, 동물의 집짓기를 배우는 주말건축반, 나침반으로 동서남북을 표시해가며 기록하는 지도공작소반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대상 ‘보헤미안 여행학교’(청소년문화의집·30명)는 광주와 전국의 문화예술

보헤미안들을 만나 그들의 삶 속 자유와 지혜를 배우는 ‘예술여행학교’로 삶의 길을 찾는 진로기행이 포함된다.

성인들을 위한 ‘시민인문학교’(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30명)는 고전, 문학, 철학, 시, 영화, 예술 등 인문 역사 속 삶의 지혜를 얻는 인문학 배움학교다.

노인예술학교 ‘청춘자서전학교’(더불어樂광산구노인복지관·30명)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노년 시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대에 전할 기록 유산을 남기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학교별로 오는 11일까지 선착순 모집하며, 19일 전체 입학식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2-670-5761.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도서관서 ‘책 향기’에 빠져 봄이 어떨까요

12일부터 도서관 주간·23일 세계 책의 날

광주시립·구립도서관 프로그램 다채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1964년부터 매년 4월 12~18일을 도서관 주간으로 지정해 도서관 이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4월23일은 유네스코가 1995년 제정,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이다. 이날은 스페인과 영국의 대문호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눈을 감은 날이기도 하다.

광주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행사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꽃피는 봄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책 향기’ 가득한 도서관을 찾는 것은 어떨까.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제50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도서관! 세상과의 평생 소통, 미래와의 설레는 동행’을 주제로 인문학 강좌 등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등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는 봄과 관련된 시를 낭송하고 시에 투영된 인생 철학을 이야기 해보는 ‘시인과 함께하는 봄날 스케치’(추후공지), ‘동화책과 함께하는 푸드교실’(12일 오후 2~4시·사전접수), ‘나만의 책 꾸러미 만들기’(13일 오후 2~4시·사전접수) 등이 눈에 띈다.

무등도서관은 18~27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호주 우수 어린이 도서 일러스트전-HELLO from AUSTRALIA!’전도 연다. 주한호주대사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도움을 받아 호주 아동도서 69점과 일러스트 43점, 지도 1점 등 호주 아동도서와 관련된 자료 113점을 전시한다.

사직도서관에서는 어린이 감성개발 프로그램 ‘동화야 놀자! 동굴놀이’(18일 오후 4~5시), ‘과년도 잡지 나눔의 장터’(12~18일) 등이, 산수도서관에서는 ‘이웃나라 전래동화 그림 그리기’(15일 오전 10~12시), 웃음치료 프로그램 ‘웃음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보요!’(17일 오후 2~3시) 등



광주시립 산수도서관이 최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산수도서관 제공>

이 열린다. 또 산수도서관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베트남 ‘수박이아기’ 등 다문화전래동화 그림책 원화가 전시되고, 23일 오전 10시에는 스리랑카, 베트남 등 악기를 체험하고, 다양한 옷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책’을 통해 이웃나라 문화 알아보

요’가 진행된다. 구립도서관과 광주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달부터 인문독서아카데미

광주시립도서관, 전남도립도서관, 담양문화원, 목포시립도서관, 보성공공도서관 등 광주·전남 5개 도서관 및 문화원이 이달부터 ‘2014년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인문정신 고양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성공공도서관은 ‘보성의 소리 서편제의 향기를 찾아서’를 주제로 강의를 연다. 지역 출신 문학가가 보성 지역 문화

와 관소리를 주제로 소설 쓰기를 강의하고 일제 강점기 문학사를 통해 본 우리의 삶과 역사를 들려준다.

전남도립도서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지혜의 샘 인문학강좌’를 진행한다. 10월에는 이기갑 목포대 교수가 ‘전라도의 말과 문화’를 주제로 강의, 17일에는 고미숙 문화평론가가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주제로 강의한다. 오는 6월까지 영화평론가 유지나, 나희덕 조산대 교수,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 김상운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이 밖에도 광주시립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이야기’, 담양문화원 ‘세상을 놀라게 한 창조적 상상력 이야기’ 등이 선정됐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선·클라비어의 ‘건반들의 수다’

광주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올 첫 공연

광주문화재단 목요상설무대 올 첫 공연이 10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첫 무대의 주인공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들려줄 선·클라비어의 ‘건반들의 수다’다.

‘선·클라비어(鮮·Klavier)’는 지난 2001년 조산대 음악교육과 서영화 교수를 중심으로 동대학 및 동대학원 출신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모임이다.

공연은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명이 연주하는 ‘원 피아노포 텐즈(1 Piano 4 Hands)’로 슈베르트의 서정적인 곡을 선보인다. 이어 솔로곡으로 슈만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쇼팽 발라드 2번, 브람스의 ‘헝가리인 무곡’,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리스트의 ‘페트리arka 소네토 104번’,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박쥐’ 서곡 등을 선보인다. 서영화, 권성해, 심지은, 문의 062-670-749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전수아, 조소미, 정하나, 박지현, 김지영, 한근영 등이 출연한다. 전석 1만원.

한편 2014빛고을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무대는 오는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펼쳐진다. 공연 일정은 다빈치 컴퓨터(4월 17일),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4월 24일), 랑 현악사중주(5월 8일), 5월 15일 NDL KOREA COMPANY(5월 15일), 베이시 최철(5월 22일), 아나야프(5월 29일) 등이다. 문의 062-670-7496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전준호·문경원

2015 베니스비엔날레 참가

‘2012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을 수상한 전준호(45·왼쪽)·문경원(여·45)씨가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가 작가로 선정됐다. 지난해 말에는 2008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지냈던 오우이 엔위자가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정된바 있다.

작가그룹인 전문호·문경원씨는 2012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영상작품 ‘세상의 지평’(13분45초)에서 급격한 기후변화로 변해 버린 미래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다뤘다. 영배후 이장재와 임수정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같은 해 열린 카셀 도큐멘타에 초청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관 커미셔너로는 이숙경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큐레이터가 선정됐으며, 이음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위원장을 맡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보성 출신 채동선 추억

광주전남 우리가곡 부르기, 11일 호신대



보성 출신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채동선(1901~1953)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다. 그는 교향곡 ‘함강’(1947), ‘현악 4중주 제1번’(3단조)(1932) 등 많은 작품을 남겼고 특히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부친 가곡 ‘고향’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매월 둘째주 금요일 함께 노래하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옥)의 4월 행사는 ‘채동선의 노래’로 꾸며진다. 11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티브라운 8층.

함께 배우는 노래는 ‘향수’와 ‘고향’이다. 또 ‘갈매기’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 채씨의 곡을 김희숙·남미영·이대형·이경미씨 등이 선사하며 ‘그리워’, ‘망향’ 등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된다.

그밖에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뮤지시니어앙상블’이 출연해 ‘아름다운 동행’ 등을 선사하며 ‘목련화’ ‘사월의 노래’ 등 추억의 노래를 함께 부른다. 참가비 1만원을 내면 커피와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song 문의 062-575-5999, 010-2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율동로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켰은 광주의 대표 맛집